KOTRA자료 23-188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4

모잠비크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Ⅰ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 가. 시장 전망 4
   -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 가. 정치적 안정세 지속…2024년에 대선 및 총선 예정 5
   - 나. 해상 천연가스 생산 증가 및 육상 가스전 개발 재개 기대 5
   - 다. 제조업 육성 및 사회 인프라 개선 6
   - 라. 북부 반군 활동에 따른 민심 불안 6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2. 시장 분석 17
   - 가. 시장 특성 17
   - 나. 교역 18
   - 다. 글로벌 공급망 20
   - 라. 투자 22
   - 마. 프로젝트 2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26
   - 가. 교역 26
   - 나. 투자 진출 29
   - 다. 협력 유망 분야 32

Ⅲ 진출전략

1. PEST 분석 36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7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3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5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6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7

Chapter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모잠비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 5.0%, '24년 8.0%로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됨**

- 북부 천연가스('22.11월 수출 시작), 광업, 채석업, 임업의 성장에 힘입어 '23년 2분기 성장률은 4.67%, 연간 성장률은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테러로 중단되었던 육상 천연가스 개발이 재개되고, SOC 외국인 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4년에는 8.0%의 성장이 전망됨

- 이후 북부 천연가스전(Coral Sul 등) 생산이 증가하고 육상 가스전(Afungi 등) 개발이 가속화되면 두 자릿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GDP 성장률 전망 : ('24년) 8.0%, ('25년) 5.1%, ('26년) 13.8%, ('27년) 13.1% (출처: IMF)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인구	백만 명	28.6	29.5	30.4	31.3	32.2	33.1	33.9	
명목GDP	십억 달러	13.2	14.8	15.4	14.0	16.1	18.1	19.9	
1인당 명목GDP	달러	461	503	507	449	501	547	587	
실질성장률	%	3.7	3.4	2.3	△1.2	2.2	3.8	5.0	8.0
실 업 률	%	24.0	23.0	21.0	23.0	미발표	미발표	18.4	
소비자물가상승률	%	15.1	3.9	2.8	3.1	5.7	9.8	7.4	
재정수지(GDP대비)	%	△3.3	△6.8	△0.5	△2.0	△1.0	0.5	△0.6	
총수출	백만 달러	4,687	5,161	4,722	3,460	5,112	5,265	5,570	
(對韓 수출)	〃	150	236	201	135	230	480	510	
총수입	〃	5,762	6,819	7,639	6,438	8,623	12,270	9,278	
(對韓 수입)	〃	57	64	62	73	2,593	140	150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1,074	△1,658	△2,916	△2,978	△3,511	△7,005	△3,708	
경 상 수 지	십억 달러	△2.6	△4.5	△2.9	△3.9	△3.6	△8.1	△7.6	
환율(연평균)	현지국/US$	59.0	61.5	65.6	73.0	65.0	63.38	65.0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26	△0.25	△0.30	1.5	1.9	미발표	미발표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2.9	27.0	22.1	30.4	51.0	미발표	미발표	

주: '23년은 추정치, '24년은 전망치
자료: IMF, ITC, UNCTAD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정치적 안정 속 '24년 총선 및 대선 준비
> ※ 북부 해상 가스전 생산 본격화, 중단되었던 육상 가스전 생산 재개
> ※ 제조업 육성, 사회 인프라 확충 등 각종 투자 기회 발생 예상
> ※ 북부지역의 지속적인 테러 발생으로 민심 불안 지속

가. 정치적 안정세 지속…2024년에 대선 및 총선 예정

▣ 독립 이후 現 집권 여당(FRELIMO)이 연속 집권하여 정치적인 안정이 지속

-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모잠비크는 정치가 안정되어 정책의 연속성이 높고 정치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

▣ 내년('24.10월)에 총선 및 대선 동시 개최 예정

- 현 모잠비크 대통령(재임)은 3선이 불가하므로 다음 대선을 위해 여당은 새로운 후보자를 선출해야 함

- 지방선거는 대선·총선보다 1년 먼저 치렀으며 총 65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당이 64개 지역에서 승리하며 압도적으로 승리

나. 해상 천연가스 생산 증가 및 육상 가스전 개발 재개 기대

▣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의 생산 및 수출 시작('22.10월~)

- 한국에서 제작된 FLNG선이 '21.11월 모잠비크에 인도되었으며, '22년 상반기에 시험 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

- '23년부터 연간 수백만 톤의 가스가 생산·수출되면서 모잠비크는 '00년대 중반 탐사 이후 가스 생산국 반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음

▣ 기존에 중단되었던 육상 가스전(Afungi, '21.4월 중단)도 개발을 재개할 전망

- 가스 개발 중심지인 Palma 지역에 대한 테러('21.3월)로 프랑스 TOTAL社는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관련 장비·인력을 모두 철수
  - TOTAL社는 '23.9월에 연말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LNG 발전, 석유화학, 비료 등 연계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제조업 육성 및 사회 인프라 개선

▣ 2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 추진

- 모잠비크 정부는 Agenda 2025, PROPINA 등 산업화 정책을 통해 주요 공산품 생산, 자국 제조업 육성, 인력 양성, 연구센터 설립 등 추진 중

- 모잠비크는 자국에서 생산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경공업을 확대할 예정, 추후 중화학 산업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

▣ 열악한 사회 인프라 개선 및 확대를 위해 투자를 지속할 전망

- 모잠비크는 전력 보급률 43%, 도로 포장률 27% 수준으로 주요 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은 공공 인프라가 특히 열악한 상황
  - 이에 정부는 대외 원조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라. 북부 반군 활동에 따른 민심 불안

▣ 북부지역의 빈번한 테러, 정부의 신속한 통제 실패에 따른 주민 생활고 심화

- 이슬람계 반군이 '17년 모잠비크 북부의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Mocímboa da Praia) 지역을 무력 장악, 이후 테러 활동이 심화되어 5,000여 명 사망

- 모잠비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인근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으나, 통제에 실패하여 현지 주민들의 생활고와 공포감은 증폭되고 있음

Chapter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정국을 주도해 정치 안정 유지, '24년에 대선 및 총선 예정
※ 천연가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FDI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SOC) 건설 확대로 산업화 토대 마련

가. 정치 환경

☞ (행정) 대통령 중심제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의회) 의회는 총 250석의 단원제이고 대통령 선거 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5년

▣ 모잠비크 독립 이후 現 여당(FRELIMO)의 연속 집권으로 정치적 안정 지속

- '14.10월 대선에서 현 대통령인 Filipe Nyusi가 득표율 57%로 당선되었으며,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도 여당이 과반(144/250석) 확보
  - 야당은 선거에 불복하여 정치 갈등이 재점화되었으나 취임한 Nyusi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 의지를 표명, 스위스의 중재하에 야당과 협상한 결과 '19년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 협정'에 서명
  - 이후 여당과 야당 간 군사적 대립 중단되어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었고 현재까지 안정 유지

〈최근('19년) 대선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수 변화〉

정당명	대표자	의석수		증감(±)
		이전	이후	
FRELIMO	Filipe Nyusi	144	184	+40
RENAMO	Ossufo Momade	89	60	-29
MDM	Lutero Simango	17	6	-11
합계		250	250	-

자료: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지난 지방선거('23.10월)에서는 여당 FRELIMO가 65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64개 선거구에서 승리해 '24.10월 대선 이후 정권 유지 가능성 확인

- 헌법상 대통령 재임은 1회만 가능해 여당은 차기 대선 후보 선정 필요

나. 경제 환경

☞ (규모) 모잠비크의 '23년 국가 GDP 전망치는 199억 달러, 1인당 GDP 전망치 587달러의 저개발 국가
☞ (교역) 자원·농수산물 등 수출, 공산품·에너지 자원 등 수입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역적자 발생
☞ (투자) 천연가스와 자원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 추세

▣ (경제) '24년 GDP 성장률 8% 전망

- 은닉 부채 스캔들('16년)로 GDP 성장률이 둔화한 이래,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비상사태('20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3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10~'16) 6.6%, ('17) 3.7%, ('18) 3.4%, ('19) 2.3%, ('20) △1.2%, ('21) 2.2%, ('22) 3.8%

- 코로나19 이후 '21년에 성장률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모잠비크는 '22년 북부에서 가스 생산을 본격화, IMF 재정 지원이 재개되면서 안정적 성장 궤도 진입

▣ (교역) '22년 교역액 200억 달러 돌파, 천연가스 수출 시작으로 교역은 지속 증가 예상

- 모잠비크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 교역규모는 '21년까지 100억 달러 전후 수준, '23년 모잠비크에서 생산한 천연가스 수출 개시로 교역량 지속 증가 전망

〈모잠비크 수출입 및 교역액 추이〉

십억 달러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교역	11.1	8.7	10.5	12.0	12.3	9.9	13.7	22.7
수출	3.2	3.4	4.7	5.2	4.7	3.5	5.1	8.2
수입	7.9	5.3	5.8	6.8	7.6	6.4	8.6	14.5
수지	△4.7	△1.9	△1.1	△1.6	△2.9	△3.0	△3.5	△6.3

자료: Trade Map

▣ (외국인 직접투자) 천연가스 및 자원 개발 분야에 집중

- 모잠비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3년 62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달성한 후, '19년 22억 달러로 1/3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FDI는 점차 증가해 '21년에는 51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22년에 다시 약 20억 수준으로 하락

〈모잠비크 외국인 직접투자(FDI) 추이〉

금액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유량(Flow)	4,902	3,867	3,093	2,293	2,703	2,212	3,035	5,102	1,975

자료: UNCTAD('23년 10월 기준 최신 자료)

다. 산업 환경

☞ (구조) 1차·3차산업 비중이 높으며, 2차산업인 제조업은 발달하지 않아 10% 정도의 비중 차지
☞ (가스) 전 세계가 16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음
☞ (광물) 석탄, 알루미늄 등 생산이 활발하며 흑연, 리튬, 티타늄 등 핵심 광물도 상당수 매장

▣ (산업구조) 모잠비크는 1·3차산업 비중이 높고 2차산업 비중은 낮음

- '23년 상반기 기준 3차산업 44.1%, 1차산업 32.9%, 2차산업 10.9%로, 모잠비크 정부는 2차산업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중

〈'17~'23년 동안 모잠비크 GDP에서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	세부 산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上
1차	농림축산업	21.7	21.5	22.5	22.8	23.1	24.7
	수산업	1.4	1.5	1.5	1.5	1.5	1.3
	광산업	7.4	7.1	6.1	5.9	6.3	6.9
	소계	30.5	30.1	30.1	30.2	30.9	32.9
2차	제조업	7.9	7.8	7.8	7.6	7.3	7.1
	전기수도	2.7	2.6	2.8	2.6	2.7	2.5
	건설업	1.7	1.7	1.7	1.7	1.6	1.3
	소계	12.3	12.1	12.3	11.9	11.6	10.9

산업	세부 산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上
3차	유통업	9.6	9.4	9.3	9.3	9.2	9.2
	교통통신	10.3	10.5	10.4	10.2	10.8	10.1
	숙박요식업	1.9	1.9	1.5	1.4	1.4	1.3
	금융서비스	5.2	5.3	5.3	5.3	5.3	5.5
	부동산	4.9	5.0	5.1	5.1	4.8	4.6
	공공행정	6.4	6.5	6.2	6.2	5.8	5.1
	교육	6.0	5.9	5.9	5.9	5.8	5.8
	보건	1.5	1.5	1.7	1.8	1.8	1.7
	기타서비스	0.8	0.8	0.8	0.8	0.8	0.8
	소계	46.6	46.8	46.2	46	45.7	44.1
중간 합계		89.4	89.0	88.6	88.1	88.2	87.9
세금		10.6	11.0	11.4	11.9	11.8	12.1
최종 합계		100.0	100.0	100.0	100	100	100

자료: 모잠비크 통계청(INE)

▣ (천연가스) 금세기 최대라 불리는 187TCF* 규모(추정)의 천연가스전 탐사

* Trillion Cubic Feet : 조 입방피트, 187TCF는 전 세계가 약 16년 사용할 수 있는 양

- ’22년 하반기부터 제4광구(Area 4)의 첫 번째 개발 사업인 ‘Coral South FLNG’ 가스전의 생산 시작, 향후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 도약 기대

- 향후 25년간 가스 개발에 따른 1,000억 달러 규모 재정 수입 발생, 천연가스 활용 LNG 발전·비료·메탄올·농업 개발 등 연계 프로젝트로 확대 예상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현황>

주(州)	광구	운영사	국적	지분 참여	단계
Cabo Delgado	Rovuma Area 1	Total E&P Mozambique	프랑스	Total(26.5%) + Mitsui(20%) + ENH(15%) + BPRL(10%) + Oil India(10%) + ONGC Videsh(10%) + PTT(8.5%)	개발
	Rovuma Area 4	Mozambique Rovuma Venture – MRV(ENI S.p.A 35.7%; ExxonMobil 35.7%; CNPC 28.6%)	이탈리아/미국	MRV(70%) + ENH(10%) + Galp(10%) + KOGAS(10%)	생산
Inhambane	Onshore Pande Block	Sasol Petroleum Temane(SPT)	남아공	SPT(70%) + CMH(25%) + IFC(5%)	
	Onshore Temane Block	Sasol Petroleum Mozambique(SPM)		Sasol Petroleum Mozambique(SPM)(100%)	
	PT5 – C Area	Sasol PetroMoz		Sasol(70%)+ ENH(30%)	탐사
Sofala	Buzi Block	Buzi Hydrocarbons	인도네시아	Buzi Hydrocarbons(75%) + ENH(25%)	
Nampula	A5-B Area	ExxonMobil Exploration and Production Mozambique (Angoche A5-B) B.V	미국	ExxonMobil(40%) + Quatar(10%) + ENH(20%) + Rosneft(20%) + Eni(10%)	
	A5-A Area	Eni Mozambico S.p.A	이탈리아	Eni Mozambico S.p.A(34%) + ENH(15%) + Sasol(25.5%) + Qatar Petroleum(25.5%)	

자료: 모잠비크 National Petroleum Institute(INP)

【모잠비크 천연가스 관련 한국 기업 참가 현황】

- (광구개발) 한국가스공사는 모잠비크 Rovuma Area 4광구 10% 지분 참여
-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는 모잠비크 가스공사(ENH)와 합작하여 상업용 도시가스 투자(3,000만 달러)
- (프로젝트) '17년 삼성중공업 FLNG(25억 달러), '20년 대우건설 액화 플랜트(4.6억 달러) 수주

▣ (광산업) 각종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

- 광산업이 모잠비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전후이며,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광물자원이 차지

  *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22년) : (석탄) 24.8%, (알루미늄) 20.7%, (코크스) 10.6%, (석유가스) 6.3%

• 모잠비크는 '09년부터 국제기구, 외국 정부 지원으로 주요 지역의 광물자원 대한 지질 탐사 시행 중

* 세계은행의 ODA 사업으로 항공·물리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특정 광물별 구체적인 매장 현황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 리튬, 니켈, 그라파이트(흑연*), 티타늄 등 핵심 광물이 탐사되고 있으나 전체 광물별 매장량 등 세부 정보는 여전히 부족

* 흑연 매장량은 2,500만 톤으로 세계 5위 규모

〈모잠비크 주요 핵심 광물 및 매장지 현황〉

순번	광물	주(州)	지역명(市)
1	Lithium	Zambezia	Lugela
2	Cobalt	Cabo Delgado	Montepuez
3	Nikel	Nampula, Tete	Monapo, Murrupula, Fingoe, Chidue
4	Graphite	Cabo Delgado, Tete	Balama, Ancuabe, Moatize
5	Titanium	Nampula, Gaza	Moma, Chibuto
6	Carbon	Niassa, Tete	Lago, Moatize, Changara, Mutarara, Marávia, Zumbo

자료: 모잠비크 광물자원에너지부

▣ (전력 분야) '30년까지 전력 보급률 90% 이상 목표

• '22년 기준 모잠비크의 전력 보급률은 43%로 전 국민 중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57%에 달하는 상황

• 정부는 모든 가정에 전력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Energy for All'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인프라 확충에 160억 달러 투자 계획(~'30년)

〈모잠비크 전력 생산 현황 추이〉

(단위: %, 건)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력 보급	비중	26.2	28.0	31.0	32.0	33.0	39.0	43.0
	증가율	0.3	1.8	3.0	1.0	1.0	6.0	12.2
신규 가설	건수	70,994	147,854	257,490	165,511	222,640	307,572	356,640
	증감률	△19.4	108.2	74.1	△35.7	34.5	38.1	16.0

자료: EDM('22년 10월 기준 최신 통계)

▣ (소비시장) 젊은층 주도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비즈니스 태동

• 모잠비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0달러/연에 못 미쳐 아직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나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인구의 70% 이상이 29세 이하 젊은층으로 외국 문물에 관심이 높고 한류에 대한 인기도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비대면 비즈니스도 발전하고 있어 온라인 유통망, 판매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

【모잠비크 소비시장에서 한국산 이미지】

- (자동차) 연간 국산차 판매 대수는 약 500대, 현지 신차 판매 5,000대 중 승용 및 SUV 분야 1위
- (가전) 국내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TV, 냉장고 등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취급
- (기타) 석유화학 원자재 등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 등에 대한 수요도 확산

라. 정책·규제 환경

▣ (산업화) '35년까지 중소득국 진입 목표

• 독립 50주년인 '35년까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화를 발전시키는 등 경제·사회 성장을 위해 Agenda 2025, PROPINA 등 정책 추진 중

• 'Agenda 2025'를 달성하기 위해 '5개년 계획('20~'24년)', '빈곤 감축 계획' 등 추진, 그러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

〈전략적 투자 분야별 주요 정책〉

전략 분야	주요 추진 정책
인프라 확충	• 산업특구(Industrial Park), 산업자유지역 조성 프로젝트 통합 • 교통 시스템 정책 통합, 전력·도로 등 사회 인프라 확충
인력 개발	• 기능인력 교육훈련 촉진 및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통합 • 인적자원개발기금(Human Capital Development Fund) 조성 • 국내외 우수 인재 발굴 및 유치 강화
국내 산업 육성	• 기업들의 품질 경영 및 인증 취득 지원 • 로컬 콘텐츠 확대, 국내 기업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 확대

전략 분야	주요 추진 정책
금융시장 개선	• 국영투자은행(National Investment Bank) 설립 • 국내 산업 대상 신용 공여(Credit Line) 확대 • 시중은행들과의 협력 확대
기업 협력 강화	• 국내 기업 매핑(Mapping)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창업 지원 확대 및 시장 개척 지원
투자 확대	• 새로운 생산기술 이용 지원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개별 투자 인센티브 개발
혁신 및 기술 개발	• 연구소 설립,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교류 지원 • 중소기업 대상 기술 개발 지원 강화
정책 역량 강화	• 산업정책 관련 부서 개혁 및 정책 훈련 확대 • 중소기업 진흥기관 및 산업정책 분야 정책조정기구 신설 • 민관 협력 정책 조정 시스템 구축

자료: Industrial Policy and Strategy 2016~2025

▣ (FDI)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 발전 추진

• '16.6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투자청(CPI), 특별산업지구청(GAZEDA), 수출진흥청(IPEX)을 통합해 'APIEX'라는 새로운 무역투자진흥기관 설립

• 모잠비크는 풍부한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자본 및 인력은 부족하여 FDI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에 주력

▣ (ESG) 모잠비크 ESG 동향

• 모잠비크에는 아직 ESG에 대한 인지도 및 정부 정책이 없지만,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 등을 통해서 환경 관련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

•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자원 감소, 재난 발생 등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모잠비크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ESG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기구·개발은행도 환경 분야에서 관련 규제를 시작할 전망
  - 일례로 글로벌 광물·자원 개발 기업들은 모잠비크에 관련 의무가 없음에도 국제 ESG 정책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 진행

〈모잠비크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 내역〉

기업	주요 내용
TWIGG Exploration & Mining Limitada	• 모잠비크 Balama 지역에서 흑연(그라파이트) 광산 개발 • 흑연 채굴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 노력 • ESG 관련 분기별 리포트 발간
KENMARE RESOURCES PLC	• 모잠비크 Moma 지역에서 Heavy Sands 채굴 • 산림 재건, 환경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활동
eni	• 모잠비크 Palma 해안지역에서 천연가스 개발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장기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 주민들의 이주 지원 및 어린이 교육과 청년 기술교육 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행

자료: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체 정리

2 시장 분석

※ 국가 잠재력이 높으며 남동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 가능
※ 제조업 육성 등을 통한 산업화 정책 및 각종 사회 인프라 확대 추진
※ 국제 원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 추세

가. 시장 특성

▣ 모잠비크는 아직 저개발국이지만 미래에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인구 3,000만 명 중 70% 이상이 29세 이하 젊은층, 영토 크기는 한반도의 3.6배, 천연가스·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 모잠비크의 풍부한 자원이 최근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 원자재 수급 리스크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의 국가 잠재력도 높게 평가

▣ 남동부 아프리카 육상·해상 물류 거점으로 성장

- 모잠비크의 6개 접경국 중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에스와티니는 내륙국으로서 주로 모잠비크 항구를 이용해 화물 운송

- 남아공은 더반, 케이프타운 등 주요 항구를 보유하였으나, 자국 물류 처리가 포화 상태여서 마푸투 등 모잠비크 항구의 이용을 확대 중

▣ 천연가스 생산 본격화, 높게 형성된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른 수혜

- Rovuma Area 4에서 해상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22년 하반기)하였으며, 규모가 큰 Area 1광구는 '28년부터 생산 개시 및 연간 10% 이상 성장 기대

- 석탄, 알루미늄 등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핵심 광물을 개발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

▣ 내수시장 확대

- ’22년 모잠비크 가구의 월별 지출이 8,661메티컬(약 18만 원)로 아직 적으나 마푸투 등 도시 중심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

나. 교역

▣ (교역) 코로나19 이후 모잠비크 수출입 시장은 모두 확대되는 추세

- (수출)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은 약 44억 달러였으며 광물, 농수산물 등과 같은 1차 산업 품목을 주로 수출

- (수입)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은 약 76억 달러로 산업용 원부자재·생필품 등 공산품과 쌀·밀 등 주요 농산물을 위주로 수입

- (수지) 모잠비크는 아직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최근 3년간 평균 30억 달러 수준의 무역적자를 기록

〈최근 8년간 모잠비크 교역 동향〉

(단위: 십억 달러)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수출	3.2	3.4	4.7	5.2	4.7	3.5	5.1	8.2
수입	7.9	5.3	5.8	6.8	7.6	6.4	8.6	14.5
수지	△4.7	△1.9	△1.1	△1.6	△2.9	△3.0	△3.5	△6.3

자료: Trade Map(’22년)

▣ (수입) 남아공, 중국 등 상위 5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60% 이상

- 국경을 접하는 남아공이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 인도 등에서 많은 제품 수입

- 한국은 ’22년 모잠비크에 103억 달러를 수출하여 모잠비크의 수입국 순위에서 1위 차지, 이는 LNG 운반선 수출에 따른 특이치가 반영된 결과

〈모잠비크의 상위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년		'21년		'2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전 세계		6,438	△15.7	8,623	33.9	11,915	99.9	100
1	한국	23	△11.7	45	95.6	4,695	10,333	39.4
2	남아공	1,885	△11.6	2,252	19.5	2,187	△2.8	18.4
3	UAE	430	△41.4	717	66.8	1,457	103.2	12.2
4	중국	695	△19.4	946	36.3	1,061	12.1	8.9
5	인도	620	33.6	740	19.3	831	12.2	7.0
6	싱가포르	363	△29.3	532	46.7	697	31.0	5.8
7	포르투갈	230	△14.5	303	31.5	277	△8.5	2.3
8	사우디아라비아	154	△26.1	241	56.3	260	162.6	2.2
9	호주	41	△4.2	206	402.2	231	△23.0	1.9
10	일본	161	△32.4	230	43.1	219	△4.7	1.8

자료: Trade Map

- 품목으로 보면 광물성 연료 에너지, 기계·차량·전자제품 등 공산품, 곡물, 동식물성 유지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

〈모잠비크의 상위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HS	품목명	'20년		'21년		'2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전 세계		6,438	△15.7	8,623	33.9	14,512	68.2	100
1	72	조선	29	△6.4	53	82.7	4,684	8737.7	32.3
2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977	△37.7	1,458	49.2	2,618	79.56	18.0
3	84	보일러 기계류	756	△23.0	818	8.3	787	△3.7	5.4
4	10	곡물	521	7.1	676	29.7	622	△7.9	4.3
5	87	일반차량	442	△25.3	610	38.0	613	0.4	4.2
6	28	무기화합물	292	△12.3	377	29.0	560	48.9	3.9
7	85	전기기기	370	△19.4	522	41.1	539	3.2	3.7
8	15	동식물성 유지	232	3.3	426	84.0	408	△4.2	2.8
9	30	의료용품	286	35.8	307	7.1	286	△6.5	2.0
10	73	철강제품	210	△6.0	293	39.6	264	△9.8	1.8

자료: Trade Map, HS 코드 2자리 기준

다. 글로벌 공급망

▣ 광물 및 천연가스 부국으로 향후 원자재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할 전망

- 석탄, 흑연, 티탄 철광 등 광물자원을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고 있으나 향후 현지 가공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자원 확인 매장량 : 흑연 2,500만 톤(세계 5위), 천연가스 187TCF(세계 12위)
  - 일례로, 수도 근교인 마톨라 지역에서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Mozal社는 보크사이트를 가공하여 알루미늄괴·봉 형태로 수출 중
    * Mozal : South 32(호주) 63.7%, 미쓰비시(일본), IDC(남아공), 모잠비크 정부 등이 20억 달러 공동 투자

〈최근 3년간 모잠비크 주요 광물 생산량 및 수출량 현황〉

(단위: 톤, %)

구분	'20년 생산량	'21년 생산량	'22년		
			생산량	수출량	수출 비중
석탄(Coal)	18,380,747	16,070,800	14,290,133	14,250,696	99.7
흑연(Graphite)	18,159	69,000	153,928	153,928	100.0
탄탈석(Tantalite)	209,041	2,006,400	117,390	117,390	100.0
티탄 철광(Ilmenite)	1,608,011	1,850,000	2,428,179	2,428,179	100.0
저어콘(Zircon)	104,076	135,400	100,552	100,552	100.0
금홍석(Rutile)	5,958	8,000	13,054	13,054	100.0

자료: 모잠비크 광물자원에너지부

- 광물자원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성장 전망
  - 석탄, 티타늄광, 코크스 등과 같은 주요 광물의 수출은 '20년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1년 다시 증가세 전환

〈최근 3년간 모잠비크 주요 광물 및 자원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	'20년		'21년		'22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2701	석탄	591	△41.9	1,079	82.7	2,035	88.6
7601	알루미늄괴	970	3.2	687	△29.2	1,700	147.5
2704	코크스	35	△83.7	334	867.1	870	160.1
2711	석유가스	231	△15.0	293	27.0	517	76.5
2614	티타늄광	181	△9.4	336	86.0	471	40.1
2615	니오붐광, 탄탈륨광 등	57	△21.9	96	70.3	170	76.6
7605	알루미늄 선	73	△30.7	136	87.3	156	14.1
7103	귀석	2	△99.1	102	6,139.2	149	45.8
2505	천연모래	34	35.9	64	84.2	62	△1.7
2504	천연흑연	5	△89.6	19	262.9	58	212.2

자료: Trade Map

- 광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과 유럽 등

〈'22년 모잠비크 주요 광물 수출국 현황〉

(단위: %)

품목	수출국 1	수출국 2	수출국 3	수출국 4	수출국 5
석탄	인도	한국	폴란드	베트남	네덜란드
	47.2	15.6	6.3	6.0	6.0
알루미늄괴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51.6	22.3	6.6	6.2	5.8
코크스	인도	한국	네덜란드	일본	UAE
	58.0	20.8	6.1	4.5	2.4
석유가스	남아공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UAE
	79.6	7.9	7.6	3.6	0.8
티타늄광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스페인	일본
	27.0	15.0	12.5	10.7	7.4

자료: 모잠비크 통계청

▣ 향후 천연가스 개발로 인해 자원 공급망에서 모잠비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될 전망

• 세계적인 정세 변동으로 모잠비크의 자원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특히 모잠비크 북부 지방에 매장된 천연가스가 '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카타르 다음가는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라. 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는 '19년 22.1억 달러로 저점을 찍은 후 최근 2년간 증가하는 추세, 러-우 사태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對모잠비크 투자 유인 증가

• (유량 Flow)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1년엔 8년 만에 연간 51억 달러까지 확대

• (저량 Stock) '22년 모잠비크의 FDI 누적 총액은 541.1억 달러를 기록

〈모잠비크 I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금액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유량(Flow)	4,902	3,867	3,093	2,293	2,703	2,212	3,035	5,102	1,975
저량(Stock)	24,919	29,276	35,715	38,034	40,712	42,893	46,280	50,068	54,114

자료: UNCTAD('23년 10월 기준 최신 자료)

▣ 한국의 對모잠비크 투자는 '22년까지 4,300만 달러(누계) 수준

• 가스 배관 건설 투자('12~'13년)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으로 3,500만 달러, 최근 3년('20~'22년) 내에는 신규법인 설립 및 투자금이 전무

〈우리나라의 對모잠비크 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개 사, 백만 달러)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22년
신규법인	1	4	0	0	0	2	1	0	0	0
투자금액	0.1	22.5	12.9	6.1	0.3	1.0	0.1	0	0.1	0

주: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 진입장벽으로는 느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 부정부패 등이 있음

- (행정 처리) 각종 인허가 취득, 세금 납부, 체류비자 발급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 토지 등 부동산도 전산화가 미흡해 소유권 분쟁이 자주 발생
- (부정부패) 보건·위생, 소방 등 관련기관이 수시로 찾아와 관리·감독을 핑계로 각종 금품 요구
- (기타) 외환 환전, 송금 등의 금융 업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림,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외국인이 현지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많음

마. 프로젝트

▣ IMF의 금융 지원이 재개되어 향후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모잠비크의 '16년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금융 지원을 중단, 정부 재원 부족으로 프로젝트 시장은 침체 지속

〈모잠비크 ODA 추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백만 달러	2,244	2,021	1,938	1,635	1,894	1,843	1,884	2,556	2,254

자료: OECD('23년 10월 기준 최신 자료)

- 이후 IMF는 '22년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천연가스 개발 진행 등을 위해 4.5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6년 만에 승인하였음
  - 또한 WB, AfDB 등 주요 원조 기관들도 모잠비크의 빈곤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관사업 논의 시작

▣ 중국, 일본 등 국가의 모잠비크 진출과 비교해 우리나라 진출은 초기 단계

- (중국) 도로·공항·항만 등 SOC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강화
  - '21년 기준 모잠비크의 對중국 채무는 20억 달러, 전체 대외 채무의 19%
  - 중국 기업은 최근 모잠비크 내 도로 건설 물량의 1/3가량을 수주하였으며, 자원 개발*, 전력, 시멘트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상황

    * (최근 사례) 中 CNPC, 모잠비크 천연가스 제4광구(Area 4) 지분 20% 매입(42억 달러)

〈중국이 진행한 모잠비크 주요 프로젝트〉

Maputo International Airport('11)	42,000석 규모 경기장 (US$ 57백만, 유상원조)
Maputo International Airport('12)	마푸투 국제공항 신축 (US$ 75백만, 유상원조)
Joaquim Chissano Conference Center('13)	7개 대형 회의장 (US$ 11.72백만, 무상원조)
Maputo Gloria Hotel('17)	마푸투 내 최대 규모 호텔 (258개 객실)
Mapito-Katembe Bridge('18)	3,041m 길이 현수교 (US$ 726백만, 유상원조)
Beira Fishing Port('19)	377m 베이라 어항 신축 (US$ 120백만, 유상원조)
Maputo Ring Road('20)	74km 길이 마푸투 순환도로 (US$ 300백만, 유상원조)

자료: APIEX

- (일본)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사업 개발, 자원·에너지 투자 활발
  - 일본 기업들은 Mitsui, Sumitomo 등 상사를 중심으로 17개 업체가 모잠비크에 투자 진출해 있으며 주요 분야는 자원, 에너지 개발 등
  - 일본 기업은 주로 자국원조기관(JICA)의 유무상 자금으로 프로젝트 참여

    * '21년 기준 모잠비크 채무국 : 중국(19%), 포르투갈(5%), 일본(4%)

【일본의 최근 주요 투자 사례】

- Mitsui : ('07) 천연가스 해상 제1광구(Area 1) 지분 투자(20%),
  ('16) Moatize 광산 개발 투자(지분 14.25%)
- Sumitomo : ('16) 가스화력발전소 2기 건설 계약(Temane 및 Maputo 발전소, 100MW급 규모)
- 일본 정부 : ('20) 자국 기업 컨소시엄으로 모잠비크 LNG 개발사업에 약 144억 달러 투자 발표
  ('23) 나깔라 항구 개발 3,000만 달러 지원 발표

〈주요 경쟁국의 모잠비크 프로젝트 진출 현황〉

국가	협력전략	주요 내용
미국	개발원조	• 연간 5억 달러를 모잠비크에 지원하는 최대 원조국 • 빈곤 퇴치, 보건, 교육,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서 협력 진행
	자원개발	• 모잠비크 북부 천연가스 개발을 엑슨모빌 등이 주도
EU	개발원조	• IP(International Partnerships), EDF(European Development Fund) 등 연계 • 프랑스 개발청, 에너지(태양광, 수력, 에너지 효율화)에 1억 유로 이상 투자, 수자원 분야 2,600만 유로 제공
	자원개발	• 프랑스 TOTAL(Area 1광구 26.5% 지분 보유), 이탈리아 ENI(Area 4광구 25% 지분 보유)에 적극 투자 • 이탈리아 ENI, 신규 석유가스 발굴사업 진출
중국	개발원조	• 정부 차원의 중국-아프리카 간 협력 채널 구축 • SOC 등과 연계한 차관을 제공(채권액 2.2조 달러)
	자원개발	• 광물 개발에 자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전폭적 자금 지원
일본	개발원조	• TICAD 등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 보건, 교육, 농촌, 교통 등
	자원개발	• Mitsui, Sumitomo 등 상사를 중심으로 17개 업체 투자 진출 • 주요 투자 분야는 자원, 에너지 등 분야
인도	개발원조	• 연간 2.5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 COVID19에 따라 10만 도즈 백신 제공
	자원개발	• 모잠비크 천연가스 Area 1광구에 5억 달러 투자
한국	개발원조	•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 • KSP, EDCF 등을 통한 인프라 개선 등 지원 • 교육, 교통, 수자원 분야 무상원조 사업 개발
	자원개발	• 모잠비크 천연가스 Area 4광구에 10% 지분 투자 • 가스 개발 관련 선박·플랜트 등을 우리 대기업이 다수 수주

자료: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체 정리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한국과 모잠비크는 상호보완적 수출입 구조로 향후 교역도 지속 확대될 전망
※ 한국의 현지 투자는 4,300만 달러 수준으로 향후 제조업 분야 진출 유망
※ ODA 연계 사업 발굴, 자원 개발 협력 등으로 양국 간 제휴 확대 필요

가. 교역

▣ 최근 한국과 모잠비크의 교역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

- (수출) 우리나라의 對모잠비크 수출은 '14년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1년 25.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 (수입) 우리나라의 對모잠비크 수입은 '18년 2억 달러, '22년 5억 달러를 돌파해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

〈최근 10년간 한국의 모잠비크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3년(1~8월)	55	△57.3	349	△38.3.5	△295	404
'22년	128	△95.1	567	146.0	△439	695
'21년	2,593	3,473.1	230	70.2	2,363	2,823
'20년	73	17.5	135	△32.7	△62	208
'19년	62	△2.8	201	△14.5	△139	263
'18년	64	11.0	236	57.4	△172	300
'17년	57	26.1	150	489.8	△93	207
'16년	45	△32.9	25	115.7	20	70
'15년	68	△33.3	12	△59.3	56	80
'14년	101	9.7	29	99.0	72	130
'13년	92	109.8	15	△78.1	77	107
'12년	44	7.4	66	179.2	△22	110

주: '23년은 '21년 같은 기간(1~8월) 비교
자료: KITA

▣ 우리나라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 모잠비크로부터는 주로 1차 상품을 수입

- (수출) '23.1~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7% 감소
  - * 기타석유화학제품 36.8%↑, 건설중장비 146%↑, 합성수지 63.8↓, 위생용품 40.2%↓
- (수입) '23.1~8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
  - * 천연가스↑, 합금철↑, 유연탄 47.9%↓, 알루미늄괴·스크랩 91.5%↓

〈한국의 對모잠비크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번	품목명	'22년		'23년(1~8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127,765	△95.1	54,509	△57.3
1	기타석유화학제품	14,026	△41.9	24,144	36.8
2	합성수지	25,947	34.9	9,386	△63.8
3	위생용품	14,767	1.1	8,833	△40.2
4	의약품	14,744	48.7	6,121	△58.5
5	건설중장비	1,437	△15.8	3,535	146.0
6	승용차	3,901	△7.3	1,276	△67.3
7	기타섬유제품	1,177	△3.1	999	△15.1
8	화물자동차	1,377	55.6	799	△42
9	축전지	1,451	△6.5	785	△45.9
10	신문용지	432	-	643	49

주: 품목명은 MTI 4단위, '23년은 '22년 같은 기간(1~8월) 비교
자료: KITA

〈한국의 對모잠비크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번	품목명	'22년		'23년(1~8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계	566,824	146	349,467	△38.3
1	유연탄	548,024	146.2	285,529	△47.9
2	천연가스	-	-	51,194	-
3	합금철	-	-	6,085	-
4	연초류	4,323	△24.8	4,582	6.0
5	동광	-	-	1,748	-
6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787	1,232.6	152	△91.5
7	게	117	△51.7	76	△34.5
8	기타가죽	29	-	28	△1.9
9	화초류	-	△100	17	-
10	보석	25	-	11	△55.2

주: 품목명은 MTI 4단위, '23년은 '22년 같은 기간(1~8월) 비교
자료: KITA

▣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 특성을 잘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

• (성공 사례) 어업국인 모잠비크 식탁에 오르는 한국산 고등어
- 모잠비크는 2,500km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어 새우·랍스터 등의 수산물이 풍부해 해외로 많이 수출되는데, 정작 내수에 필요한 생선은 별도로 수입
- 현지 수산물 수입업체와 접촉한 결과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한국산 냉동 고등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육질이 퍽퍽하여 한국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25~30cm 정도 크기의 고등어가 모잠비크에서 오히려 인기를 얻어 '22년 9만 달러 상당 물량 수출에 성공

▣ 모잠비크의 수입 규제 정책

• 수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세관의 통관 검사는 까다로운 편
- (수출입 인허가)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 필요
- (관세율) 현지 평균 관세는 농산품 14.1%, 공산품 9.7%
- (부가가치세) 16%(IVA)
- (수입 제한) 동물, 마약, 총포류 화약, 외화, 귀금속 등

• 모잠비크는 수입 적합성 평가 제도 도입
- (대상 품목) '23.11부터 19개 품목에 대해 수출 선적 前 품질 인증서 발급 의무화
  * 세부 품목에 따라서 인증서 발급이 불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 전 국내 INTERTEK(인증서 발급 업무 대행)에 사전 확인 필요 (HS 코드 8자리로 확인 가능)
  * '23.11.1 현재 기준 : 19개 품목군을 총 214개 품목으로 세분화하며 이 중 94개 세부 품목만 필수 평가 대상

〈수입품 적합성 평가 대상 품목〉

번호	품목	번호	품목
1	장난감, 스포츠 장비, 체육 및 휴양 장비	11	보안 및 안전 관련 제품
2	전기·전자	12	예술품, 공예품 및 관련 제품
3	자동차, 중장비 및 관련 제품	13	식품 및 관련 제품
4	화장품 및 위생용품	14	광물, 원자재 및 화학 제품
5	건설기자재	15	광학 장비, 부품 및 시스템
6	기계 시스템, 기구, 공구	16	유리 및 세라믹 제품
7	천, 가죽,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17	측정 장비(기계, 전자, 비전자)
8	가구 및 목재 제품	18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9	식기	19	중고 제품
10	종이, 문구류 및 관련 제품		

- (예외 품목) 개인 소포, 상업용 샘플, FOB 2,000달러 이하 제품 등은 품목에 상관없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투자 진출

▣ 우리나라의 對모잠비크 투자액은 ’22년까지 4,300만 달러(누계) 수준

- ’12~’13년의 가스 배관 건설 투자 외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
  * 한국의 對모잠비크 전체 투자액 중 ‘전기·가스·증기·배관’ 분야의 비중은 90% 육박

〈우리나라의 對모잠비크 투자 추이〉

(단위: 개 사, 백만 달러)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22년
신규법인	1	4	0	0	0	2	1	0	0	0
투자금액	0.1	22.5	12.9	6.1	0.3	1.0	0.1	0	0.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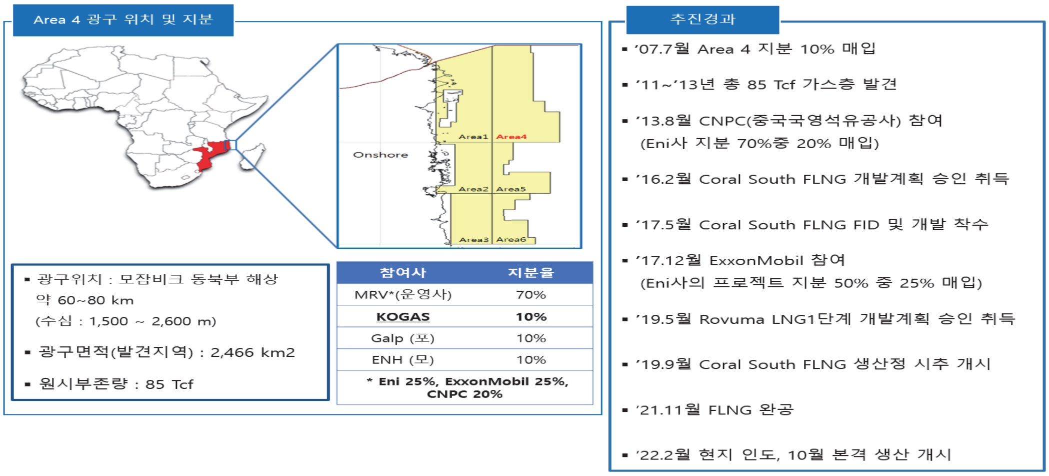
주: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

- (한국가스공사) 모잠비크 북동부 해상에서 개발되는 6개의 천연가스 해상광구 중 제4광구(Area 4) 지분 10% 매입('07.7월)

- (연계 프로젝트) 국내 기업이 모잠비크 가스 개발을 위한 FLNG, LNG 운반선, 액화 플랜트 설비 등을 수주하여 투자 진행

〈KOGAS 모잠비크 가스 개발 경과 및 주요 내용〉



자료: 한국가스공사

▣ 정부 ODA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 진행

• '10년 이후 우리나라의 對모잠비크 유무상 원조 금액은 약정액 기준 4.4억 달러, 이 중 유상원조 비중은 74% 차지

* 주요 프로젝트 :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1.2억 달러), 남풀라-나메틸 고속도로 건설(7,400만 달러)

• 원조사업 중 무상은 KOICA, 유상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로 진행

- 특히 유상원조 사업은 우리 기업의 우선 참가가 가능해 이를 통해 진출 가능

* '22년 對모잠비크 ODA 현황 : KOICA(10건), 기재부(6건), 농림부(2건) 등 / 무상 16건, 유상 4건

〈모잠비크 ODA 프로젝트〉

사업명	유형	사업예산 (억 원)	'24년 예산 (억 원)	총 사업기간	구분
모잠비크 마푸투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립사업	프로젝트	646.94	82.29	2015~2027	양자 유상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283.51	0.81	2015~2024	양자 유상
모잠비크 남풀라 및 잠베지아주 초등 교육 형평성 및 질적 개선 사업 (UNICEF)	프로젝트	89.25	2.23	2020~2024	다자성 양자(무상)
모잠비크 공공 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2차)	프로젝트	1,180.28	138.32	2021~2025	양자 유상
모잠비크 도로 안전 시범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	프로젝트	83.30	19.72	2020~2024	양자 무상
모잠비크 직업훈련교육 역량 강화 사업	프로젝트	77.00	10.95	2019~2025	양자 무상
모잠비크 리쿵고강 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90.75	44.75	2021~2025	양자 무상
모잠비크 소팔라 지역 성생식 모자보건 개선 사업	프로젝트	84.70	15.62	2021~2025	다자성 양자(무상)

▣ 모잠비크는 광물·가스 등이 풍부해 공급망 구축 필요

• (천연가스) '23년 한국으로 수출 시작, '28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천연가스가 생산되면 모잠비크는 글로벌 주요 가스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 '23.1~8월 천연가스 수입액은 51.1백만 달러로 한국의 對모잠비크 2위 수입 품목 등극(1위는 유연탄)

* Area 4광구의 KOGAS 지분 참여로 확보한 가스 양은 한국이 약 3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

- (광물자원) '22년 한국은 모잠비크에서 3억 달러 이상의 석탄 수입, '23년부터는 천연가스를 수입 시작
  - 향후 리튬, 텅스텐 등 핵심 광물 등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

▣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

- (KOGAS) 한국이 3년 사용 가능한 가스 자원 확보, 국내 기업 동반 진출 달성
  - 한국가스공사는 우리 정부와 협력,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 초창기에 빠르게 광구 개발에 참여해 10% 지분 확보
  - 우리나라 공기업의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 참여로, 우리나라 여타 기업도 FLNG, LNG선을 수출하고 각종 플랜트 사업에도 동반 진출할 수 있었음

- (피자헛) '21년 하반기 모잠비크에서만 두 번째 철수
  - 전 세계에 약 1만 8,000개 매장이 있는 피자헛은 모잠비크 진출 초기에는 높은 인지도로 인기를 얻었으나, 점차 맛과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반응 증가
  - 동시에 미국식보다 유럽식 피자를 선호하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할 수 있는 현지화된 피자 메뉴를 보여주지 못하여 결국 두 번이나 실패

- (수산물 가공공장) 예측보다 열악한 인프라로 큰 차질 발생
  - 우리나라 모 기업은 모잠비크의 풍부한 새우·생선 등을 현지 가공해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부 지역에 첨단설비를 갖춘 가공공장 설립
  - 그러나 한국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급속냉동이 전력·인프라 부족으로 불가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현지 내수용으로만 판매하게 되어 큰 손실 발생

▣ 노동권이 강화된 모잠비크 노동법에 유의 ('24.2.21부 시행 예정)

- 모잠비크는 국민소득·산업화 수준 대비 노동법이 매우 엄격하고, 모잠비크 근로자들은 자기 권리 주장 경향이 강함
  - ◦ '24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이 신설되고, 투자 진출 시 참고 필요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하는 주요 개정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 또는 직장 밖에서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빈도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 · 직장 내 괴롭힘에는 직원을 불안하게 하거나 존엄성을 훼손,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포함
직원에 대한 동의 없는 감시 금지	· 직원의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무단 감시를 통해 얻은 직원의 비위 증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
장거리 출장 시 여비 지급 의무	· 30km 이상 이동하거나 8시간 이상 출장 시 여비 지급 의무
신체검사	· 업무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관련 검사 가능하나 업무와 무관한 AIDS 검사 등은 금지
중소기업의 기간제 인력 채용 유연화	· 설립 후 8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간제 인력을 인원 제한 없이 채용 가능 · 기간제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연장 가능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차원

- 모잠비크 천연가스·광물자원 개발, 한국의 경제 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포함해 유무상 원조사업 등 협력 확대 가능
  - (천연가스 개발) ’17년 제4광구 개발과 함께 ’19년부터 제1광구 개발도 본격 진행
    * ’17년 제4광구의 첫 번째 개발 사업인 ‘Coral South F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D)이 완료, ’18.9월에는 FLNG 선박 건조식(삼성중공업 수주)이 이루어지는 등 프로젝트 본격화
  - (핵심 광물 탐사) ’21년 모잠비크 Nyusi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은 광물 개발을 위한 투자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경제 정책) 모잠비크는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이 빠른 성장을 이룬 데 기여한 정책·경험에 큰 관심이 있음

▣ 기업 차원

- (공공조달) 모잠비크는 ODA가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6%(’21)에 달하며 원조받은 재원을 통한 각종 프로젝트의 발주가 증가
  - 보건·의료, 의약품 관리, 전자정부, 통관 시스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사회 인프라) 모잠비크는 도로·철도·항만·전력 등 사회 인프라가 열악하며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
  - 수력 발전소 건설, 기존 발전소 유지보수,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향후 수요 확보

• (천연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가스 발전소 등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진출 확대
  - 조선·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건설, 비료, 화학 플랜트, 가스 발전소 등 천연가스 연관 분야에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

• (기타) 국산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현지 외국인 유입 증가 및 현지인 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 생활용품·식품 등에 대한 수요도 확대

▣ 천연가스 차량(Natural Gas Vehicle, NGV) 확충 프로젝트 분야에서의 대표 사례

• 모잠비크 에너지부는 모잠비크 국내 천연가스 활용 확대, 원유 수입 비용 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차량(NGV) 확대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
  - '18.9월 양국 정부는 천연가스 차량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정부(환경부)의 자금 지원으로 '18.10월 프로젝트 타당성(F/S) 조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완료
  - '20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모잠비크 정부의 예산 확보 문제와 COVID-19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로 당초 모잠비크 에너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사업 브리핑 등이 중단
  - '21년 모잠비크 정부의 요청으로 동 사업을 KSP, EIPP 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22년 하반기 에너지부 관계자가 방한함
  - 천연가스 차량은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이고 모잠비크도 우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해 향후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공급망

• 모잠비크는 석탄, 알루미늄, 대량의 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이 풍부해 우리나라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비중은 낮은 편

• 향후 모잠비크에서 자원 개발, 제조업 육성 등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와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협력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모잠비크 주요 핵심 광물 및 매장지 현황〉

순번	광물	주(州)	지역명(市)
1	Lithium	Zambezia	Lugela
2	Cobalt	Cabo Delgado	Montepuez
3	Nikel	Nampula, Tete	Monapo, Murrupula, Fingoe, Chidue
4	Graphite	Cabo Delgado, Tete	Balama, Ancuabe, Moatize
5	Titanium	Nampula, Gaza	Moma, Chibuto
6	Carbon	Niassa, Tete	Lago, Moatize, Changara, Mutarara, Marávia, Zumbo

자료: 모잠비크 광물자원에너지부(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 특히 흑연의 경우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광물이나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다각화 차원에서 모잠비크 주목 필요
  - (총 매장량) 2,500만 톤 추정, 세계 전체 매장량의 약 8% 차지
  - (주요 매장지) 북부 Cabo Delgado주의 Balama, Ancuabe, Montepuez 지역, Tete주의 Angonia 지역, Nampula주의 Monapo 지역
  - (생산량) 모잠비크 정부의 예상 흑연 생산량은 '23년 117,400톤, '24년 329,000톤으로 전년 대비 180.2% 증가 전망
    * 모잠비크 연도별 생산량 : ('20년) 12만 톤, ('21년) 7만 7,100톤, ('22년) 18만 2,100톤
  - (수출 현황) 모잠비크 흑연의 '22년 주요 수출국은 중국(58%), 미국(13%), 네덜란드(7%) 순이며, 총 수출액은 2026년까지 연평균 10%대 고성장 전망
    * 모잠비크의 대중국 수출 비중 추이 : 15%('20) → 36%('21) → 58%('22)
    * 모잠비크의 천연 흑연 전체 수출 중 한국 차지 비중은 0.08%
  - (주요 기업) 모잠비크는 자체 광물 개발 기술이 부족해 호주, 유럽 등 기업의 투자를 받아 개발

Twigg Exploration and Mining Limitada	호주 Syrah Resources사의 자회사 추진 중인 모잠비크 발라마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흑연 채굴 및 가공 사업
Gk Ancuabe Graphite Mine	독일 AMG Graphite의 자회사 모잠비크 내 2위 생산기업
Tirupati Graphite	영국 기업, '24년 모잠비크에서 천연 흑연 50,000톤 생산 계획
Triton Minerals	호주 기업, 중국 JHT社가 34.01% 지분 보유 안쿠베 및 코브라 플레인 프로젝트 개발 중
Battery Minerals	호주 기업, 몬테푸에즈 및 발라마 센트럴 흑연 프로젝트 개발 중

Chapter

Ⅲ

진출전략

Ⅲ 진출전략

> ※ PEST 및 SWOT 분석에 따라 현지 시장 특성에 맞게 '인프라, 소비재, 프로젝트, 공공조달' 이라는 4개 키워드 도출
> ※ 각 키워드별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등 제시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 모잠비크는 대통령 중심제로서 임기 5년에 연임 1회 가능 • 의회는 단원제로서 총 의석 수는 250석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도 5년 • 집권 여당 FRELIMO는 포르투갈 식민 통치 독립 이후 정권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의회도 과반수(184/250석) 이상 차지 • 아프리카 주변국 대비 정치가 안정적인 편이나 부정부패 만연 • 2024년 대선 및 총선 동시 진행 예정
E 경제 (Economic)	•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효과로 '23년은 5%, '24는 8%의 높은 경제성장 전망 • 테러로 인해 중단되었던 LNG 육상 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되면 성장은 더욱 가속화 기대 • 빈곤율이 매우 높으나 외국인 유입 및 소득 성장으로 모잠비크 내수시장의 성장 전망은 긍정적
S 사회문화 (Social)	• 전 인구의 70% 이상이 29세 이하이며, 60세 이상은 6%뿐 • 옛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포어를 사용하며, 포르투갈, 브라질 등 포어권 문화의 영향이 큼 • 한류 영향으로 젊은층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상승 추세 • 학교 및 교사 부족으로 교육 수준이 매우 낮고, 기술 교육도 미흡
T 기술 (Technological)	• 전기 보급률은 43%, 도로 포장률은 27%, 인터넷 보급률은 40% 수준으로 인프라가 매우 열악 •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 등이 없어 외국자본 및 기술에 의존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유럽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 선박, 석유화학, 철강 등 천연자원 개발 및 활용과 연계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유 • KSP, EDCF 등 개발협력사업 지속과 한류 등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확대	• 경쟁국인 중국, 인도 대비 가격경쟁력 부족 • 원거리 제약 및 현지에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개발할 네트워크 및 현지 거점 부족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
•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의 본격화로 높은 경제 성장 및 전후방 사업 활성화 기대 • 모잠비크 정부 및 기업, 소비자의 한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호감 및 탄탄한 신뢰 • 인구 및 소득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의 확대가 예상	• 현지의 도로·항만·전력 등 빈약한 사회 인프라 • 잠재적인 정치적 리스크와 국제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정성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천연가스 전후방 프로젝트 기회 발굴 •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자원 개발 참여 강화	프로젝트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 한국의 산업화 경험 활용 강점 분야 협업 • 모잠비크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실행력 확대	인프라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디지털 마케팅 및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을 통한 거리 극복 • 한국 브랜드 파워 바탕으로 청년층 집중 공략	소비재
WT 전략 (방어/철수-위협 대응)	• 무역관 네트워크 활용한 정부 조달 기회 발굴 • 은닉부채 해결에 따른 IMF 등 국제 원조 재개 기회	공공조달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4년 진출전략

키워드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인프라	인프라 개선 수요 및 산업 육성 정책 활용 사회 인프라, 석유화학, 원자재, 기계류 등 중점 육성에 따른 사업 기회 발굴
소비재	온·오프라인 마케팅 병행 소비재 수출 한류를 통해 현지 인지도가 높아진 화장품, 가공식품 등 소비재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마켓 동시 공략
프로젝트	천연가스 생산 연계 프로젝트 참여 테러로 중단된 육상 가스 개발 프로젝트 재개 임박함에 따라 천연가스 자동차, 전력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등 참여
공공조달	모잠비크 정부 자체 조달 시장 공략 모잠비크 정부의 공공 인프라 현대화 및 디지털화 수요를 포착해 전자정부, e-러닝, 보건·의료 시스템 등 구축 사업 등 참여

모잠비크 경제성장 모멘텀을 활용해 모잠비크 시장 진출

3-1. 인프라 개선 수요 및 산업 육성 정책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로 향후 25년 동안 1,000억 달러의 재정 수입 창출 기대
* 모잠비크 영토에서 진행되는 가스 개발 관련 인허가, 세금, 로열티 등 잠정 수입으로 추정

ㅇ 사회 인프라, 석유화학, 비료, 발전, 도시가스 도입, 해상·육상 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투자 확대 기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슈) 천연가스 개발로 향후 25년 동안 1,000억 달러의 재정 수입 창출 기대

- (트렌드)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 수익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사업 발굴에 적극적
  - 천연가스를 활용한 사회 인프라 조성, 에너지 및 석유화학 제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 계획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사회 인프라) 천연가스 개발 수익을 통한 SOC 확충
  - 모잠비크는 그간 재원 부족으로 도로·공항·항만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는 상황
  -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이라는 호재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을 계획
  - 특히 향후 수도권 지역에 비해 열악한 중북부 지역에서 도로·교량·항만 현대화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진행이 기대됨

- (석유화학) 천연가스 연계 석유화학산업 개발 프로젝트
  - 모잠비크는 '16년 비료, GTL(천연가스 액화기술), 나깔라(Nacala) 지역 화력 발전소 개발·운영권 입찰 진행
  - 분야별로 비료(Yara, 노르웨이), GTL(Shell, 미국), 나깔라 발전소(Great Lake Africa Energy, 영국)에 허가권을 부여

- (원자재)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각종 원자재 및 기계류의 수요 증가
  - 스펀지, 플라스틱 원자재, 철강, 재생원료 생산기, 농업용 기자재 등 유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2. 온·오프라인 마케팅 병행을 통한 소비재 수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모잠비크에서 확대되고 있는 SNS 등 온라인 마케팅과 현지 유망 전시회(FACIM)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 ㅇ 디지털 마케팅, 오프라인 전시회, 온·오프라인 상담회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슈) 열악한 인터넷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에선 코로나19 계기로 온라인 사업의 도입이 촉진됐으며,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

- (트렌드)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9세 이하 젊은층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망 및 배송 서비스 확대, 각종 SNS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는 추세

▣ 진출전략 및 추진 방향

- (전략) 현지 유통망 활용하여 소비재 수출을 도모하고 마케팅 행사와 연계해 각종 온·오프라인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 (추진 방향)
  - (온라인 유통망) 화장품, 가공식품 등과 같은 한류 틈새 상품을 발굴해 팝업 스토어 방식으로 소량 다품종 입점 지원
    * 주요 온라인 플랫폼 : BAZARA, VIP Spar, Krolyc, Mais Vendas
  - (오프라인 유통망) 현지 시장에서도 수요가 제법 발생하고 있는 음료, 면도기, 냉동 생선 등 일반 소비재 입점 지원
  - (전시회) 현지 최대 규모인 모잠비크 종합 박람회(FACIM)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현장에서 온·오프라인 상담회 개최
  - (화상상담) 물리적 거리 극복이 가능해 활용·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

【2023 제58회 FACIM 전시회 개요】

- ▪ 기간/장소 : 2023.8.28~9.3 / 모잠비크 마푸투 인근 전시장
- ▪ 주최 : 모잠비크 투자무역청(APIEX)
- ▪ 규모 : 25개국 2,500개 사
- ▪ 주요 참가국 : 모잠비크, 포르투갈, 독일, 브라질, 중국, 태국, 아프리카 인근국 등

3-3. 천연가스 생산 연계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모잠비크에서는 21세기 최대 규모인 187TCF 가스전 개발이 진행 중으로, '28년부터 생산이 본격화되면 카타르 다음가는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부상 기대

ㅇ 테러로 중단된 육상 가스 개발 사업이 '24년부터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관련 분야에 투자하거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슈)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해양 및 육상 플랜트, 조선, 석유화학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과의 협력 수요 증가

- '17년 삼성중공업 FLNG(25억 달러), '20년 대우건설 육상 액화 플랜트 건설(4.6억 달러), '20년 삼성중공업 및 한국조선해양 LNG 수송선(30억 달러) 등

• (트렌드) '21.3월 북부 천연가스 개발 지역에 대한 테러로 육상 가스 개발 사업이 중단, '24년부터 재개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창출 예상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천연가스 자동차) 모잠비크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은 천연가스 자동차 분야 관련 직접 한국의 정책·규제·기술 분야 정보 공유 등 협력 요청('17년)

- '18년 한국을 방문해 우리 측 환경부 장관과 모잠비크 천연가스 차량의 보급 정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MOU 체결

• (전력산업) 모잠비크 전력공사(EDM)는 '15년부터 한국의 발전·송전·기자재 분야 협력 강화, 가스 발전소 프로젝트 건립 관련 협력 희망

- 모잠비크 정부는 전력 인프라 '마스트 플랜 2018~2043'을 통해 향후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수립
- 모잠비크는 수력발전 잠재력이 높으나 현재까지 10% 정도만 개발된 상태로 잠베지강의 수원을 활용하여 Mphanda Nkuwa댐 건설을 계획 중
- 이외에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발전 등도 향후 유망한 상황

  * '22년 10월 모잠비크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한국의 석탄발전소, 풍력 등 시설 견학

3-4. 모잠비크 정부 자체 조달 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ㅇ 모잠비크 정부 조달시장의 주요 분야는 보건·위생, 빈곤 퇴치, 사회 개발로, 이를 위한 정부 및 국제 원조 재원 지속 투입
- ㅇ 모잠비크 정부조달 시장은 '17년 30억 달러 수준에서 '20년 68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계속하여 확대될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슈) 최근 천연가스 개발 붐으로 경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 기금 및 원조의 증가로 빈곤 퇴치 및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 지출 집중

- (트렌드) 보건·의료, 의약품 관리, 전자정부, 통관 시스템, 교육 등 현대화·디지털화 수요 확대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전략) 모잠비크 정부에서 진행하는 조달사업 참여 확대

- (유망 분야) 모잠비크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참여
  - (행정) 디지털 정부 업무 시스템, 부동산 등기 및 공문서 처리, 치안 확보 등 각종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교육) 도농 간 소득 및 인프라 격차에 따른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거리 교육 시스템(e-러닝) 도입 수요가 증가
  - (교통) 운전면허 시험,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의 확대 정비가 시급
  - (보건) 가짜 의약품 단속 및 인허가 시스템 구축

【국내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사례】

- ■ 기업 : A社(모잠비크 진출기업)
- ■ 사례 : 코로나 진단기기(2,500회분) 기부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24만 달러 납품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스펀지 원자재 (폴리어)	선정사유	모잠비크 현지 제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원자재 수입이 증가
	시장동향	침대용 매트리스 제조에 주로 사용되며,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품질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신규 공급처 수요가 있음
	경쟁동향	최대 경쟁국은 UAE, 중국, 영국으로 시장 점유율도 높은 상황
	진출방안	한국 제품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고품질 상품에 대한 수요 겨냥
품목명 2		
플라스틱 원자재	선정사유	소비재 사용 증가에 따라 플라스틱 제조업 활성화
	시장동향	기존 남아공·중국 제품의 가격 상승, 공급 부족 등으로 신규 공급처 발굴에 적극적
	경쟁동향	점유율은 남아공 40%, 인도 16%, 한국 15%, 사우디아라비아 11% 순으로 최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 급증
	진출방안	남부는 남아공에서 육로로 운송할 수 있어 경쟁력 우위가 떨어지므로 중부·북부 진출이 유리
품목명 3		
철강	선정사유	건설업, 제조업, 인프라 프로젝트의 활성화
	시장동향	고부가가치 인프라 프로젝트, 현지 철강 제조업에 투입될 고품질 철강 수요가 발생할 전망
	경쟁동향	수입산 점유율은 남아공 46%, 중국 22%, 일본 10%이며, 한국산 수입은 미미
	진출방안	철강을 수입·유통하는 바이어보다는 철강을 사용하는 제조업체·건설사 대상의 직접 거래가 유리
품목명 4		
변압기 오일	선정사유	남아공을 통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로 운송 시 오염 발생
	시장동향	남아공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지만, 최근 물량 부족 및 품질 불만으로 대체 공급선 발굴 필요
	경쟁동향	전체의 약 85%를 남아공에서 수입하며 바레인, 인도, 말레이시아 등 제품도 시장에 진출
	진출방안	남아공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시장 진출전략 수립
품목명 5		
인테리어 자재	선정사유	도시 주택 보급 확대, 관광업용 숙박시설 증가, 빌딩 및 사무실 증가로 인테리어 시장 성장
	시장동향	페인트 → 벽지·타일 → 데코타일 등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고급 전등과 소품 시장도 성장 추세
	경쟁동향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아공 혹은 언어·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에서 고급 인테리어 자재 구매
	진출방안	DHL, FEDEX, EMS 요금이 비싸고 샘플 통관도 까다로워 전시회·수출상담회 계기로 바이어를 방한 초청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품목명 6		
비료	선정사유	정부·국제기구의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장려에 따라 농업 기자재 수입 증가
	시장동향	농민들의 비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조달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제품들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며 벨라루스, 모리셔스, 이집트로부터의 수입도 확인됨
	진출방안	현지 토질과 생산 품목에 알맞은 비료 시장 공략
품목명 7		
관개용 기자재	선정사유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장려에 따른 관개시설 및 기자재 수요 증가
	시장동향	남아공의 대형 농장을 모티브로 한 관개시설이 대다수로, 피봇 관개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경쟁동향	남아공, 중국, 포르투갈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단순 기자재뿐 아니라 한국식 농업 및 관개수로 구축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자재 수출 방안 모색
품목명 8		
한국차 부품	선정사유	한국 자동차 시장점유 증가로 A/S 부품 소요 증가
	시장동향	현대·기아 판매 증가, A/S 부품(브레이크 패드, 클러치, 램프 등), 중고 엔진 등의 수요 증가
	경쟁동향	최대 수입국은 UAE, 남아공, UAE이며 수입 제품은 모조품으로 품질이 낮음, 남아공은 모델별로 소량만 수입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아주 높음
	진출방안	현지 한국산 신차 판매는 연 500대 수준으로 매년 판매량이 조금씩 증가 추세. 시장 규모에 맞게 소량 다품종으로 접근
품목명 9		
사무용 의자	선정사유	외국 기업들의 진출 증가로 사무용 가구 시장 확대
	시장동향	FOB 50달러 이하로 수입된 제품이 500달러 이상으로 판매되는 상황
	경쟁동향	모잠비크 3대 가구 유통망이 주로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 튀르키예이며 이탈리아산 고급 가구 수입도 활발
	진출방안	디자인, 컬러 등 한국 제품의 특색을 내세운 제품으로 차별화 필요
품목명 10		
건강 보조제	선정사유	장수, 다이어트 등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증가
	시장동향	멀티비타민, 단백질, 건강 보조제 시장 확대
	경쟁동향	'17년까지 인도와 남아공 제품이 시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우루과이 35%, 인도 22%, 남아공 19% 등 순
	진출방안	홍삼, 아시아 한방제품 등이 함유된 건강 보조제 진출 가능 유망
품목명 11		
숙취 해소제	선정사유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숙취 해소제 시장 형성
	시장동향	주류 소비는 매년 늘어나 모잠비크 남성의 약 57%, 여성의 29%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됨
	경쟁동향	아직 시장에 소개된 숙취 해소제는 없는 상황
	진출방안	현지 유통망과 협업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노후 발전소 수리	선정사유	모잠비크 발전소 노후화로 전력 생산 효율성 감소
	시장동향	모잠비크 최대 수력발전소 HBC댐의 경우 항시 발전소를 수리하고 있으며, 기타 소규모 화력발전소 또한 노후로 인한 수리가 잦은 상황
	경쟁동향	발전소 건설 및 수리 분야는 유럽(포르투갈, 독일), 남아공 업체 점유율이 높음
	진출방안	우리나라 발전소 수리 기술은 유럽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으며 가격경쟁력 또한 높다는 점을 부각
품목명 2		
플랜트	선정사유	천연가스 개발 등으로 인해 관련 플랜트 시장 확대
	시장동향	액화 플랜트, 화학공장, 비료공장, 발전소 등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가 발주될 전망
	경쟁동향	일본, 노르웨이, 남아공, 독일, 영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 관심도가 높은 상황
	진출방안	광구 개발에 참여 중인 한국가스공사의 프로젝트나 旣 진출한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
품목명 3		
전자정부 (문서 디지털화)	선정사유	모잠비크는 지금도 종이 문서로 업무를 처리
	시장동향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일부에서만 적용되어 추가 개발이 시급함
	경쟁동향	언어적으로 유리한 포르투갈, 독일 기업이 수주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남아공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사례도 확인됨
	진출방안	현재까지 진행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PPP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직접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 참여가 필요
품목명 4		
e-러닝	선정사유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증가
	시장동향	코로나19 이후 e-러닝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공공기관의 e-러닝에 대한 관심이 확대
	경쟁동향	대부분 기관이 무료 앱 Moodle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 업로드,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희망
	진출방안	모잠비크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PC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학습률이 높아 현지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 공급이 필요
품목명 5		
인쇄	선정사유	높은 출산율(4.89명)로 전체 학생 수 증가 및 교육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시장동향	수백만 권 단위의 교과서를 매년 발주하고 있음
	경쟁동향	한국, 인도 업체의 프로젝트 참여율이 높으며 남아공으로부터의 인쇄도 병행되고 있음
	진출방안	교과서 인쇄는 발주처·출판사와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문 물량이 많고 현지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므로 시즌별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전시회 등

• (전시회) 마푸투 국제 종합 박람회(FACIM, 모잠비크 최대 종합 박람회)
  - 시기/장소 : '24.8월 말(잠정), 모잠비크 마푸투 인근(Marracuene) 전시장
  - 대상/지원 : 국내 기업 카탈로그 샘플 전시 및 상담 대행, 화상상담 주선

• (지사화) KOTRA 마푸투 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 수행(유료)
  -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바이어 방문, 현지 출장 지원 등

• (연중 상시) 각종 수출 지원 사업
  - 시장조사(유료), 세일즈 출장 지원(유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바이어 발굴 등

▣ 공공조달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 (공공조달) 연중 공공조달 지원센터 운영
  - 모잠비크 정부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의 조달정보 입수

• (프로젝트 수주) 프로젝트 정보 발굴, 발주처 초청, 현지 입찰 지원 등

▣ 개발 협력 및 ESG/CSR 사업 진행

• KSP, EIPP 등 각종 ODA 사업 발굴 및 지원

• (ESG/CSR) 국내 및 현지 수요 발굴 및 지원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중소기업 수출 지원	지사화 사업 지원	연중/모잠비크
	수출 중단기업 수출 재개 지원	
	수출상담회 등 화상상담 지원	
개발 협력	KSP/EIPP 및 ESG/CSR 사업 수요 발굴과 지원	연중/모잠비크
소비재 진출 확대	'24년 마푸투 국제 종합 박람회(FACIM 2024)	'24.8월 말/오프라인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연중/모잠비크
정부조달 및 프로젝트 수주	공공조달 지원센터 운영	연중/모잠비크
	모잠비크 가스 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참가 지원	
	발주처 방한 유치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모잠비크 대선	’24.10.9.	
모잠비크 총선	’24.10.9.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4.5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재59회 마푸투 국제 종합 박람회 (FACIM 2024)	’24.8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선우	관장	마푸투 무역관	+258-21-487-072	sunwoo@kotra.or.kr
2	문희원	사원	본사 아시아중아팀	+82-2-3460-7661	clairexmoon@kotra.or.kr

2024
모잠비크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지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SBN : 979-11-402-0885-2 (95320)